

※ [8-9]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껍데기는 가라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설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모든 쇠붙이는 가라

8.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교훈적 의미를 찾아 전달하고 있다.
- ②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다.
- ③ ‘껍데기’라는 사물을 통해 섬세한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발언하는 참여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9. 위 시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맹이’는 ‘껍데기’와 대립되는 시어로 4·19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의미한다.
- ② ‘아사달’과 ‘아사녀’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 ③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 통일에의 염원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 ④ ‘동학년 곰나루’는 동학 농민 전쟁의 본거지였던 웅진을 의미하고 ‘아우성’은 동학 전쟁 당시의 민중의 수난을 상징한다.
- ⑤ ‘쇠붙이’는 ‘향그러운 흙가슴’과 대립되는 시어로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무력이나 이데올로기 대립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일컫는다.

10. 다음 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삼국사기』 <견훤·궁예> 조에 실린 궁예 관련 기록을 <궁예전>이라 부를 수 있다. 이와 달리 설화 전승 집단이 <궁예전>의 전반부에 보이는 출생 과정의 신이성, 기아(棄兒) 그리고 극적 구출담과 후반부에 보이는 ‘궁예의 몰락과 비참한 죽음’을 토대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하여 한 편의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이 ‘궁예 설화’이다. <궁예전>이 설화화 과정을 거쳐 구전으로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궁예 이야기에 내포된 허구적인 요소와 왕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역사적 사실이 설화 전승 집단의 흥미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설화 전승 집단은 <궁예전>에서 모티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궁예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궁예와 관련된 사실이나 사건을 <궁예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런 ‘궁예 설화’는 궁예와 관련된 신이성이 제거되어 행적 위주의 흥미 본위로 재구성된 이야기와 궁예의 몰락과 비참한 죽음을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증거물과 함께 활용하여 재구성된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궁예 설화’는 철원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런 ‘궁예 설화’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철원은 원래 삼백 년 도읍지의 운을 타고 난 곳인데, 궁예의 인내심 부족과 경솔함 그리고 왕건으로 대표되는 외부 세력의 농간으로 삼십 년 도읍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설화 속에는 설화 전승 집단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비록 철원이 몇십 년이지만 한 나라의 도읍지였을 정도의 길지라는 자긍심이 설화 전승 집단으로 하여금 ‘궁예 설화’를 전승하게 한 원동력으로 보인다. 현재 철원과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궁예 설화’는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증거물의 존재로 인해 전설의 형태로 계속 전승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증거물과 무관하기 때문에 궁예와 관련해서 행적을 위주로 한 흥미 본위의 이야기로 전승될 것으로 보인다.

- ① <궁예전>의 내용
- ② ‘궁예 설화’의 전승 이유
- ③ ‘궁예 설화’ 속 철원의 지형
- ④ ‘궁예 설화’ 설화 전승 집단의 지역적 자긍심
- ⑤ ‘궁예 설화’의 전승 전망

11. 다음 중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집에서 ∨ 처럼 ∨ 당신 ∨ 마음대로 ∨ 할 ∨ 수 ∨ 있는 ∨ 것은 ∨ 아네요.
- ② 그러려면 ∨ 고민도 ∨ 많이 ∨ 해 ∨ 보고, ∨ 교양서적을 ∨ 읽어도 ∨ 봐야 ∨ 하죠.
- ③ 아는 ∨ 대로 ∨ 말하고 ∨ 약속한 ∨ 대로 ∨ 이행하는 ∨ 삶의 ∨ 자세가 ∨ 필요해요.
- ④ 직장에서 ∨ 만이라도 ∨ 부디 ∨ 예의를 ∨ 지킬 ∨ 줄 ∨ 아는 ∨ 사람이 ∨ 되어 ∨ 줘요.
- ⑤ 우리는 ∨ 언제든 ∨ 성장할 ∨ 수 ∨ 있어요. ∨ 마음만 ∨ 먹으면 ∨ 누구든 ∨ 가능하죠.

1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은 비가 와서 친구들과 집에서 호젓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② 그는 언제나 호쾌히 부탁을 들어주는 멋진 사람이다.
 ③ 아름다운 이곳은 언제 봐도 참 호탕한 풍경이다.
 ④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다. 과중한 업무에 몸이 호졸근히 되었다.
 ⑤ 호화찬란하게 꾸며 놓은 호텔에 도착하니 이제야 여행을 왔다는 실감이 났다.

13. 다음 중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청소년들이 남은 여가를 선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③ 소위 말하는 여소 야대 정국이 출현했다.
 ④ 어느 나라 사람이나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기쁠 때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

14.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ㄱ, ㄴ, ㄷ, ㄹ의 순서대로 옳게 제시한 것은?

- ㄱ. 세계 석유 시장의 ()에 주목해야 한다. ()이 높다는 것은 석유의 생산국과 수출국이 소수이고, 이들 국가에 석유의 생산과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ㄴ. 현대에 들어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이 대두됨에 따라 ()은 과거처럼 글을 읽고 쓰는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사진, 영상, 소리 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ㄷ. 최근 한국 드라마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는 자극적인 흥미에 치중한 나머지 허황되고 몽상적인 인물과 사건 설정으로 인해, 드라마 속의 이야기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납득할 만한 ()이 현저히 파괴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ㄹ. 최근 A 방송국에서 방영된 전염병을 소재로 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메르스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는데, 그 적절한 보도 시점 때문에 ()을 칭찬해 줄 수 있다.

- ① 편재성(偏在性) - 시의성(時宜性) - 문식성(文識性) - 개연성(蓋然性)
 ② 편재성(偏在性) - 문식성(文識性) - 개연성(蓋然性) - 시의성(時宜性)
 ③ 편재성(偏在性) - 개연성(蓋然性) - 문식성(文識性) - 시의성(時宜性)
 ④ 개연성(蓋然性) - 문식성(文識性) - 편재성(偏在性) - 시의성(時宜性)
 ⑤ 문식성(文識性) - 시의성(時宜性) - 개연성(蓋然性) - 편재성(偏在性)

15.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oe[wou] - 위 ② wag[wæg] - 왜그
 ③ yawn[jɔ : n] - 윤 ④ shank[ʃæŋk] - 생크
 ⑤ mirage[mira : ʒ] - 미라지

16. 다음 예들과 동일한 구성 방식을 보이는 단어로 옳은 것은?

끓주리다, 늦더위, 높푸르다, 덮밥

- ① 논밭 ② 첫사랑
 ③ 늪은이 ④ 가로지르다
 ⑤ 꽃감

17. 다음 시조에 드러난 주제적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자 성어는?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과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뢰 아무리 일러도 임이 해여 보소서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빛과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괴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지 그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아버지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날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괴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

- ① 석별지정(惜別之情)
 ② 견견지정(戀戀之情)
 ③ 연독지정(吮犢之情)
 ④ 자유지정(自有之情)
 ⑤ 연군지정(戀君之情)

18.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물건을 세는 단위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기요, 접시 두 죽만 주세요.
 ② 이 북어 한 캐는 얼마입니까?
 ③ 어이구, 장작을 세 우리나 됐네.
 ④ 올해는 마늘 한 겹이 얼마일까?
 ⑤ 삼치 한 몫 값이 올랐네.

19.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ㄱ. 특히 오늘의 세계는 숨 가쁠 정도의 기술 혁신의 와중에 있고 기술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정보의 폭발적 증가는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입수하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정보처리 및 관리 기술이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인공 위성을 위시한 각종 원격 통신기기 등 정보 처리 내지 통신 수단의 발달은 거리와 시간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순식간에 탐색 입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ㄴ. 이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은 정보 처리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신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 산업기술정보 워크숍은 이러한 본 연구원의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 개발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공통 애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제 워크숍이 세계 산업 기술 정보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 ㄷ. 진실로 오늘날의 세계는 변화의 소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시장, 디자인, 법규 및 각종 제도 등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기업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환경하에서도 기업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신속하게 입수하느냐가 기업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 ㄹ. 이와 같은 현대적인 정보 처리 및 관리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 그러나 신흥 개발 국가들은 최신 정보 처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질을 갖춘 고급 요원이 부족하고, 바로 이 점이 이들 나라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ㄷ - ㄱ - ㄹ - ㄴ
 ⑤ ㄷ - ㄹ - ㄴ - ㄱ

20. 다음 글에서 말하는 ‘감염주술’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술의 원리가 되는 사고의 원리를 분석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귀결된다. 하나는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낳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과는 그 원인을 닮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전에 서로 접촉이 있었던 것은 물리적인 접촉이 사라진 후 멀리서도 계속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앞의 것을 유사(類似)의 법칙, 뒤의 것을 접촉의 법칙 또는 감염의 법칙이라 부를 수 있다. 주술사는 유사의 법칙에 의해서 단지 어떤 것을 모방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두 번째 접촉의 법칙 또는 감염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접촉했던 물체에 가한 행위는 그 사람의 신체에 직접 가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와 같은 결과를 그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한다. 유사의 법칙에 기초한 주술을 ‘유감주술’(類感呪術)이라 부르고, 접촉 또는 감염의 법칙에 기초한 주술을 ‘감염주술’(感染呪術)이라고 부른다.

유감주술에서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는 생각에 가장 익숙한 예는 적과 닮은 모습을 만들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파괴해서 그 적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를 죽이려는 시도이다. 닮은 모습을 괴롭히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괴롭고, 그 모습이 파괴되면 상대방도 반드시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시대를 통해 이것을 사용했다. 한편 감염주술은 이전에 결합했던 것은 그 후 서로 떨어져 있어도 공감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한쪽에 일어난 것은 다른 쪽에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 ① 오지브와족 인디언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으면 나무로 자기가 노리는 상대의 작은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의 머리카락이나 심장에 침을 찌르거나 활을 쏜다.
- ② 중국의 일부 민족은 아이의 태반을 기가 좋은 곳에 잘 묻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 돼지나 개가 파내서 먹으면 아이가 지혜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멕시코 인디언 코라족은 죽이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태운 점토와 형견 조각들로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주문을 외우면서 인형의 머리를 침으로 찌른다.
- ④ 에스키모족의 주술사는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이를 상징하는 작은 인형을 만들어서 의식을 거행하고 그것을 베개 밑에 넣고 자라고 지시한다.
- ⑤ 캐나다 누트카족의 주술사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물고기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물고기가 물려오는 방향으로 그것을 물에 넣는다.